

濟州道の 觀光開發에 관하여

日本側 調査團員 勝間田 隆吉

濟州島는, 一名 “韓國의 하와이” 라고도 불리우고 있는데, 中央에 韓國第一의 名山 漢拏山이 우뚝 솟아 있는 이 섬은 틀림없이 으뜸 가는 觀光地로 생각된다. 變化無雙한 海岸線, 漢拏山을 中心으로한 山岳地帶, 各地에 点在하는 世界에서도 有數의 大溶岩洞窟 등의 豊富한 天然의 觀光資源과 아울러 곶골프, 낚시, 狩獵 등의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것은 極히 魅力的이다.

나는 濟州道를 찾는 外國人觀光客의 大部分이 日本人이라는 사실에서, 日本人으로서 濟州道の 觀光開發에 관하여 다음의 두 項目으로 나누어 말하고자 한다.

- (1) 日本人 觀光客으로서, 濟州道에서의 生活에서 不便하게 느낀 點.
- (2) 濟州道の 觀光開發의 現狀에서의 問題 點과 그 改善策

먼저, 第一의 項目부터 말하기로 한다.

우리들은 洞窟調査의 잠잠이 濟州道の 主要한 觀光據點을 見學했다. 또 濟州市에서는 市街地를 거닐며 物件을 사기도 하면서, 濟州道 사람들의 生活에 實地로 接觸 수가 있었다. 거기서 가장 切實하게 느껴진 것은, 言語의 問題이다. 이번에 있어서는 다행히 韓國側 調査團의 여러분이 通譯을 해주셨기에 그다지 不便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우리 같은 경우가 아닌 一般 觀光客이 濟州道를 찾았을 때에는, 言語에 대하여 상당히 不安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主要한 觀光地나 호텔에 日本語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 두면, 이 不安은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關係되는 분들에게서 一考해 주시길 바란다.

또, 地名 등의 固有名詞에 관해서는, 漢字를 併用해 주었으면, 市内버스 등도 ulla분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우리들은 濟州市에서는 韓國式 旅館을 이용했다. 여기에 가장 不便하게 느낀것은 변

소나 食堂에 洗手用의 水道가 없었던 것이다. 日本에서는 小學生 때부터 用便后나 食事前에 손 씻기를 強要當해 그것이 習慣으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변소 등에 洗手用의 水道가 없으면 非衛生的으로 느껴진다. 이것은 단순히 習慣上의 差異겠지만, 이런 點을 改良한다면 韓國式 旅館의 利用者도 늘어나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食事問題에 대해서 言及한다.

우리들은, 洞窟調査로 인한 疲勞와 낮선 食事 때문에 全員이 설사를 이르켜 胃腸을 해치고 말았다. 濟州道 觀光을 하자면 最少限 2泊3日 程度의 日程을 짜지 않고서는 섬을 一周하기조차도 힘들다. 그러므로 그 동안 食事 때마다 韓國料理를 먹자면 日本 사람들의 입에 맞지 않아 胃腸은 녹초가 되고만다. 胃腸의 녹초로 끝난다면 그래도 좋겠지만, 그 때문에 韓國料理는 보기조차 싫다는 상태에 이른다면, 觀光地로서는 失格이다. 그러므로 韓國式 旅館의 食事 메뉴에도 簡單한 西洋料理나 日本料理가 끼게 된다면 觀光客에게 좋은 印象을 주며, 胃腸을 해치는 일도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어 第二項으로 넘어 간다.

먼저, 濟州道の 觀光開發의 現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觀光資源을 充分히 活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은 濟州道の 바닷가料理를 먹을 機會가 있었다. 거기서 요리된 生鮮은 아주 신선하고 맛도 최고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料理에 대해서 뭔가 不足하다는 아쉬움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그 뭔가 不足하다는 아쉬움이란, 料理의 藝術性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日本의 料理는 맛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料理를 담은 솥씨며, 食器의 色彩도 풍부하여 食慾을 돋군다. 이러한 感覺은 日本人 特有의 것인지 모르겠으나, 濟州道の 바닷가料理에 대해서도 調理法의 研

究에 머리를 쓴다면, 愛好家도 늘리라고 생각한다. 여하간, 지금 그대로의 調理法으로서는, 素朴함은 있어도, 生鮮이나 조개 등의 좋은 점을 充分히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濟州道 레저의 代表的인 것의 하나인 낚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올해 日本의 新聞에 濟州道の 낚시에 관한 記事가 실린 적이 있다. 그 記事는, 實際로 濟州道에서 낚시를 했던 낚시 愛好家の 不滿에 관한 것이었다. 그 不滿이란, 우선 낚시배의 料금이 비싸다는 것, 다음으로 비싼 料금 만큼의 서어비스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料금이 얼마큼 비쌌는가 하면, 日本과 같은 料금이었다는 것이다. 日本과 料금이 같다면, 비싼 旅費를 들여서까지 濟州道에 낚시 올 魅力은 없을 것이 아닐까. 料금이 같고 서어비스가 不充分하다면, 濟州道에 올 낚시 愛好家の 數도 日本의 낚시人口로 보자면 미미한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新聞記事에서 지적된 서어비스의 欠如의 예로서는, 낚시배의 뱃사공이 도미 낚시의 미끼로서 오징어 자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때문에 하루종일 낚시를 했어도 한마리도 낚지 못했다는 것이다. 日本에서는 도미낚시에는 산 새우를 미끼로 쓰고 있다. 그것을 낚시배의 뱃사공이 준비하는 것이 통례이고, 아울러 뱃사공은 자기 손님에게 도미를 낚게 하는 職業意識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한마리도 낚지 못한다면 뱃사공으로서의 프라이드가 損傷되며, 낚시군인 손님의 뱃사공에 대한 評價도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나라 風習의 差異를 理解한 위에, 낚시라는 觀光基盤의 하나를 再考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濟州道の 가장 멋진 觀光資源으로써 變化無雙한 海岸線이 있다. 그 중에서도 海水浴場이 있는 바닷가는, 찾아 온 사람들로 하여금 水泳하지 않고서는 못배길 衝動을 즐만큼 아주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행히도 우리들은 몇 번인가 그 海水浴場에서 水泳할 機會를 가질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바다의 푸르름과 희고 흰 모래사장에 魅了되었다.

그러나, 그 海水浴場으로서의 施設面을 볼

것 같으면 不充分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몇 군데 있었다. 먼저 변소가 없었다. 汚水處理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기어히 解決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뉘수만 있으면, 脫衣場·샤우어 등을 具備한 施設을 海水浴場에 갖추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더욱 더 마음 편히 水泳할 수가 있고, 日本사람에 대하여 海水浴이라는 面에서도 觀光어 피일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또 熔岩洞窟에 關係서는, 熔岩洞窟만 가지고서는 觀光資源으로서의 呼訴力이 약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宿泊施設이나 피일드·애스레틱의 施設을 具備한 自然公園이든가 牧場公園을 熔岩洞窟 가까이 設置한다면 熔岩洞窟을 찾는 觀光客의 數도 現在 보다는 增加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濟州道 觀光客層의 開拓에 관하여 말하려고 한다.

日本에서는 해마다 海外觀光客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늘어난 것이 20代 前半의 未婚女性이다. 그녀들은 一般的으로 獨身貴族이라고 불리며, 自身이 일해서 번 돈을 自由로 쓰며 旅行 등을 즐기고 있다. 濟州道에는, 그녀들을 滿足시키는데 充分한, 浪漫으로 充滿한 觀光資源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狀態로서는 그것이 제대로 活用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즉, 日本人 觀光客이라면 景勝地 巡廻, 낚시, 狩獵 등이 中心이고, 濟州道에서의 休暇를 즐기려는 觀光客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獨身貴族이라고 불리우는 日本人 女性으로 하여금 濟州道로 旅行케 하려며는, 濟州道에서의 生活을 즐길 수 있을 만큼의 施設을 準備하고, 한편 日本에 있어서의 宣傳도 充分히 하지 않으면 안되겠지만, 지금의 日本에 있어서 가장 自由롭게 돈을 쓸수 있는 것이 그녀들이라는 것을 考慮한다면, 濟州道の 觀光客으로서 그녀들을 誘致한다는 것의 意義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以上이 濟州道の 觀光開發에 關한 나의 率直한 意見이다. 濟州道는 高度로 集積된 觀光資源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充分히 開發되지 않고 있는 現狀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濟州道の 觀光資源이 크게 活用될 날을 기대한다. 그날을 위하여 나의 意見이 조금이라도 參考가 된다면 多幸이다.